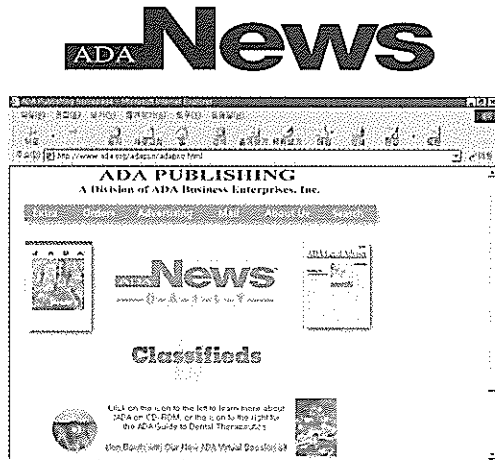


임신 중 구강건강 관리와 ADA의 여성건강과 통솔력 회의

(Oral Health during Pregnancy and ADA Women's Health and Leadership Conference)



폭우와 함께 화오리바람(Tornado)이 한 바탕 휩쓸고 간 7월의 Indianapolis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미리 계획된 3년만의 한국방문은 너무나 짧은 일정이었다. 일일이 찾아 볼지 못한 치과계 여러 선배님들과 동문들에게 지면으로 인사드리면서 7월의 미국 치과의학 정보를 요약한다. 현재 미국의 정치계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환자보호법을 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ADA는 10월에 Missouri 주 Kansas City에서 개최될 142회 연차총회를 위하여 모든 안건을 점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ADA의 2002년도 예산을 수입 7천19만2300불, 지출, 7천1백84만6950불로 작성하여 Kansas City에서 개최되는 ADA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회의 최종적인 검토와 인준을 위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 중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2000년도의 ADA 잉여자금과 회비증가를 통한 수입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총책임진 차기회장 D. Gregory Chadwick씨는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여성 건강에 대한 회의

2001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Kansas City에서 개최될 142차 ADA 연차총회에서 제1차 여성 건강과 통솔력(leadership)회의를 개최한다. 여성과 여성환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이 회의는 10월 15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계속될 것이며 점심을 포함한 참가비를 \$25로 책정하고 있다.

여성들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강 병과 이러한 구강 병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구강 병이 어린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권위자들과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인 여성의 역할과 가정과 건강정책을 위한 통솔력에 대한 중점적인 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Colgate-Palmolive 회사의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Lois Juliber 여사가 특별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Juliber 여사는 Fortune 50에서 실시한 사업가 중에서 가장 세력있는 여성 중 19위로 선정된 여성이다. 미국 공중보건진료소의 최고 책임자이며 미국치과대학연구소의 부 소장인 Dushanka Kleinman 박사가 이번 회의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을 관장하는 좌장을 맡게 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할 연자들과 토의할 제목은 다음과 같다.

Barbara J Steinberg 박사는 사춘기, 월경, 임신, 폐경기와 같은 중요한 여성 건강의 변화기간동안 입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피임제와 hormone 대처방법이 구강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이러한 여자환자들을 치료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Steinberg 박사는 여성과 특히 관련되는 식사장애(eating disorder)와 가정폭행의 피해에 대한 치과의사의 임무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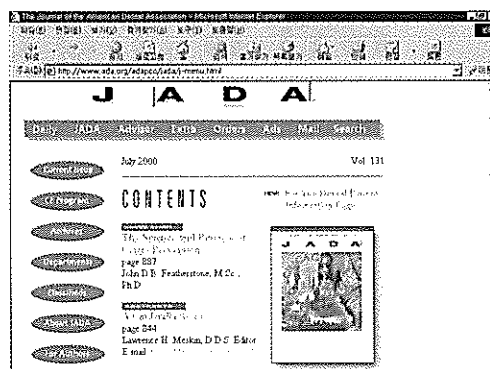
Majorie Jeffcoat 박사는 여성의 구강 병과 전신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조기 출산 (preterm birth)과 폐경후의 골다공증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며 최근의 연구로 알려진 구강병과 전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언급 할 예정이다.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이라는 여성 월간지의 주간인 Judy Norisgian 여사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사실과 허무맹랑한 허위 내용을 구별하는 방안, 특히 유전, 유방암, 치료약제, 담배사용 및 정형외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며, 만성 치주염 : 전신건강에 대한 조용한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만성 치주염과 노인병으로 간주되고 있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및 뇌혈을 비롯한 뇌혈관질환 (cerebrovascular disease)에 대한 과제를 다룬다.

Linda Niessen 박사는 노령 여성들을 위한 구강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전신질환과 의학적인 상태, 특히 구강건강과 폐경기에 대한 과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구강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여성의 건강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 : 현 위치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여성건강연구소 소장이며 여성건강연구소 부 소장인 Vivian Pinn 박사가 마지막 연사로 초대되어 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장래에 실시해야 할 여성건강 연구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여성건강에 대한 중점적인 회의는 Colgate-Palmolive 회사의 부분적인 보조금으로 진행될 것이다.

J A D A



2001년 7월호 JADA는 937쪽부터 1008쪽까지 금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Missouri 주 Kansas City에서 개최되는 142차 미국치과의사협회에 발표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소개하였다. James B Bramson 사무총장과 Robert M. Anderton 회장은 10월12일 전야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ADA 회원들의 전체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JADA 7월호는 '우수한 사실'이란 제목으로 주간 Lawrence Meskin 교수의 사실로 시작되었다. "JADA 주간 직을 끝내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수많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주저하는 마음 없이 매달 JADA 사실을 집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다"고 Meskin 교수는 말하면서 주필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의견을 15만 여명의 ADA회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회상하였다. 11년 동안 JADA 주간 임무를 맡고 131개의 사실을 집필했는데 이제 주간 직을 떠나면서 사실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공허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JADA의 사실은 지식으로 활동이 시작된다는 철학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다고 지적하면서 ADA 회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들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기초적인 증거 자료를 확인 한 후 ADA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점검하면서 세밀한 분석을 거쳐 사실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문제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고 했다. Meskin 교수는 지난 11년 동안 그가 마련한 사실 중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5편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eskin 교수는 (1)JADA 1999년 3월호 및 2001년 1월 호에 게재된 '교내에서 좌판을 통한 청량음료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실, (2)1997년 8월과 1999

년 7월 호의 구강암에 관한 사실, (3)1992년 8월 호에 게재된 치과의학분야의 최신기술에 대한 사실, (4)1998년 4월 호에 게재된 환자보호와 관련된 사실, (5)2000년 10월 호에 게재된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실을 자신이 마련한 우수한 사실로 선정했다 (JADA 132:851-852, 2001).

'독자들의 편지'에서는 지난 JADA 4월호에 발표된 치과보험이 제3대구치의 발거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Michigan 대학교의 Stephen Eklund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의 보고에 대하여 Montana주 Independence의 치과개원의사인 Fred Knapp씨의 의견과 지난 JADA 4월호에 David Brisman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의 인접부위에 실시한 Implant의 실패 사례에 대하여 Chicago 소재 미국 근관 치과의사협회 회장인 Jeffrey W. Hutter씨의 세밀한 분석과 발표된 논문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랄한 분석내용과 Brisman씨의 반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치과의사 과잉양성에 대하여 '과거로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JADA 4월호에 Meskin교수가 사설로 다룬 내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Meskin 교수가 주간 직에서 금년 말을 계기로 물러난다 하더라도 좋은 일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을 지속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New Jersey의 Melle Mead의 개원치과의사인 Frederic Sterritt씨의 편지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JADA 4월호에 게재된 SDD (Subantimicrobial Dosing with Doxycycline)의 효용에 대한 New Jersey 의과치과대학의 Gary Greenstein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Stony Brook New York 주립대학교의 Lorne M. Golub 교수의 분석과 공개질의에 대한 대답 내용을 공개했다.

News에서는 미국인들 중 젊은 성인층에서 설암(tongue cancer)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과 black tea(녹차가 산화된 경우의 차를 말 함)가 구강질환을 예방한다는 Illinois 대학교 치과대학의 Christine Wu 박사의 연구 결과와 HIV 환자들의 치과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JADA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치주감염과 조기출산

만삭이 되기 전에 조기 분만된 영아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로 고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여성의 경우, 전체 분만의 약 10%가 조기 분만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수집된 상황이다.

이러한 조기분만은 치주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Alabama 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주임인 Marjorie K. Jeffcoat 교수는 Birmingham 소재 Alabama 대학교 영아연구소에서 1313명의 임신부를 상대로 임신 후 21 내지 24개월 되는 시기에 구강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영아의 출산 기록을 조사하여 치주질환과 조기분만의 관련성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흡연상태, 영아의 분만 순서, 종족 및 임신부의 연령에 대한 변수를 감안하여 수정한 다음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가능율(odd ratio)을 계산했다. 최종적 분석결과를 보면 심한 치주병에 감염된 경우 정상인 경우보다 조기분만의 가능성이 4.45배로 증가하였고 여러 가지 변수에 감안하여 수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5.28배 내지 7.07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임상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Jeffcoat를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팀은 임신 후 21내지 24개월 된 때에 심한 치주염의 감염이 된 경우에는 조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확실한 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JADA132:875-880, 2001).

관상 동맥성 심장병과 만성 치과감염 제거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치주질환을 잘 치료하면 관상동맥성 심장병의 위험도가 감소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러나 치과질환으로 인한 감염을 제거하여 만성적인 관상동맥성 심장병(Coronary Heart Disease ; CHD)의 위기를 감소시킨다는 결정적인 임상연구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Seattle의 Washington 대학교 치과대학의 역학 및 공중보건 치과의학 부교수인 P.P. Hujoel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NHANES 1 (First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 참여했던 4027명을 대상으로 역학적인 전향적 분석을 통하여 치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감염경로를 제거하게 된 무치악 환자들과 치주염에 감염된 특수한 환자들을 상대로 17년간 계속 추적한 1238건의 CHD를 분석하여 만성적인 치과 감염과 CHD가 아무런 통계적인 의의성을 내포한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성감염(dental infection)을 치료해야한다고 권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JADA 132 : 883-889, 2001).

7년간 계속된 검사를 실시한 치과환자들의 혈압조사 결과

본 연구 논문은 1998년 JADA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후속 연구결과다. 24명의 정상 혈압 환자들 중 23명의 혈압을 15분간의 간격으로 9일 동안 3회씩 연달아서 4회 혈압 측정된 경우와 몇 주일의 간격을 두고 2일 과 3일 동안 혈압을 측정한 것이다.

본 후속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혈압측정연구를 실시한 후 7년 후에야 전화를 통해서 심장 혈관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접촉이 가능한 12명의 환자들 중 2명만이 심장혈관계에 이상이 있다고 확인되었고 이 2명의 환자에서만 혈관계에 myocardial infarction 및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속해서 3회 혈압을 측정한 경우 이상이 나타난 경우와 한번 혹은 두 번 혹은 전혀 한번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5일간 측정된 혈압의 평균치가 한번 혈압을 측정한 경우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특수한 환자인 경우에는 혈압 측정만으로 확실한 진단이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둔다면 한 환자에게 평균 894회의 혈압을 측정해야하며,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혈압을 측정해야만 혈압을 한번 측정해서 알 수 없는 위

협성이 높은 환자를 분별 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임상연구에 근거를 두고 Schffer를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팀은 치과의사들은 구강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한 환자를 계속해서 몇 일 동안 치료해야 되는 특별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루는 환자들에게 계속 해서 연속된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연속된 혈압측정을 통해서 혈압과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심장전문 의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의뢰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JADA 132 : 891-899, 2001).

구강평편태선(Oral lichen planus): 환자 푸로화일, 병의 진로 및 치료에 대한 반응

Oral Lichen Planus (OLP)는 만성적이며 면역반응을 통해서 피부점막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임상적인 증세가 다양하다. 구강점막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OLP의 발생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가 거의 없다.

San Francisco의 California 대학교(UCSF) 치과대학 구강병리과의 Nita Chaiai-Wu를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진은 1996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치과대학 구강내과에서 다룬 229명의 OLP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진시의 자각 및 타각적인 증세와 치료를 위하여 진료실을 방문할 때마다 OLP의 진전상황과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를 통하여 초진시의 증세와 비교하였다.

임상적으로 다룬 환자들 중 OLP가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55세였고 전체환자들의 67%에 해당되는 154명의 환자들은 여자 환자였다. 타각적인 임상증세는 OLP의 진전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망상(reticular)으로부터 진부름(erosive)으로 나타냈다. Corticosteroids 사용하여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 괴양의 치료효과와 발적 증세가 완화된 것을 확인했다.

모든 환자들을 추적 조사 한 결과 전체 환자의 65%는 초진 시와 비교해서 별로 변화한 것이 없고

35%의 환자들은 초진시보다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으며 1.7%에 달하는 4명의 환자는 평편 상피형 구강암으로 변했다.

이러한 임상적인 연구를 근거로 UCSF 치과대학의 임상연구팀은 OLP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적인 구강병이라고 언급하면서 병의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ADA 132:901-909, 2001).

묘소병(Cat-scratch Disease ; CSD) 치과의학적인 관점

하악 부종 때문에 치과 치료실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 그 원인을 확실하게 감별 진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악 부종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폐혈증, 피부의 감염, 결핵, 백혈병, 종양 및 묘소병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악의 부종이 발생한다. 하악부종과 관련시켜 이러한 원인들에 근거를 두고 감별 진단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CSD는 경부 임파선병변 (cervical lymphadenopathy)를 초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미국에서 일년에 7만건의 새로운 CSD가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전신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성을 띄우고 자연적인 방어 경로를 취하여 육종성(granulomatous)으로 변하거나 국소적인 화농성 임파염증(suprative regional lymphadenitis)으로 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양이들이 병원균을 보유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인균을 보유한 고양이들은 해당된 균에 대한 면역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이며 감염으로 인하여 균혈증 (bacteremia)을 발생할 경우에도 고양이는 12개월 정도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보통이고 미국 고양ীদের 56%가 항체에 대한 양성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묘소병의 원인균은 gram-negative bacillus

Barthoneilla henselae라는 사실이 1992년 Regnergy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묘소병 환자들이 증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치과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ew York의 Columbia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외과 및 타액선 연구소장인 Louis Mandel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진은 CSD의 감별진단 과정과 임상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다루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가장 중요한 임상적 감별진단 과정은 원인 균으로 확인된 B. henselae의 감염 여부를 세균 배양이나 혈청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CSD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된 lymph node에 외과적으로 화농유출로(surgical drainage)를 마련해주면 CSD의 증세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JADA 132:911-914, 2001).

순치은 절흔(labiogingival notch): 임상적으로 중요한 해부학적이 변형

순치은 절흔은 상악 전치에 영향을 주는 발육현상으로 임상적으로 오진하기 쉽다. Jerusalem의 Hu-Hadassah 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외 Ben-Bassat 교수는 순치은 절흔이 있는 두 환자의 임상증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증례는 상악 중절치에 발생한 순치은 절흔을 우식으로 오진한 증례이며 두번째는 외부 흡수라고 의심하고 상악 절치를 강제맹출(forced eruption)을 시도한 증례였다. 발육상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순치은 절흔으로 인하여 상악전치에 발현된 임상증세를 오진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임상 증례를 발표한 저자들은 강조하였다 (JADA 132:919-921, 2001).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와 pin을 사용해서 유지한 복합성 Amalgam 보존치료의 효과

치관이 많이 손상된 치아의 보존 치료시에 보존치

료물의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threaded pins, boxes, amalgapins 및 slots와 같은 방안을 사용해 오고 있다. San Antonio의 Texas Health Science 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Summitt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팀과 Denver의 Colorado 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의 Berry 교수 및 New Orleans의 Louisiana 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Brugess 교수가 28개는 pin을 사용하여 보존치료를 유지했고 32개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보존치료를 유지한 전체 60개의 amalgam 보존치료에 대하여 5년간 임상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89년에 Parkell 회사가 개발하여 상품화한 4-methacryloxyethyl trimellitate anhydrite(4-META)를 기초로 한 아말감 접착제를 사용했다. 보존치료를 실시한 다음 4년 차 추적 검사 시에 6개의 보존 치료가 실패로 나타났으며 5년 차 추적검사서 40개의 보존 치료만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3개의 보존 치료가 실패된 것으로 판정되어 전체적으로 9개의 보존 치료가 실패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보존치료가 실패된 9개중 7개는 pin을 사용해서 유지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2개는 접착제를 이용한 경우였다. 5년 후에 추적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실패율, 변연 적응율, 변연 변색 및 재발우식과 치아의 민감도 및 치아의 생명력(vitality)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상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Summitt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5년 동안 추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pin을 사용해서 amalgam 보존물의 유지를 시도한 경우와 4-META를 기초로 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보존 치료물의 유지를 시도한 경우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JADA 132 : 923-931, 2001).

임신중의 구강건강 : 임신위험도 평가를 계통적 분석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분석

“임신을 한번 할 때마다 한 개의 치아를 상실한다”는 말이 있듯이 임신중의 구강건강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오고 있다. 문헌상으로 보

고된 결과를 보면 임신부의 구강건강에 대한 hormone의 영향으로 치은염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임신부의 약 10%가 화농성 육종(pyogenic granuloma)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임신부는 질병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강증진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임신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임신부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연구와 적절한 안내서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최근 치주염과 출산결과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임신부의 구강내 Streptococcus mutans의 관리를 통해서 영아에게 우식 원인 균을 감염시키는 경로를 방지하여 유년기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중앙 질병관리 및 예방연구소의 Mary Lyn Gaffield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역학 연구팀은 1998년부터 Pregnancy Risk Assessment Monitoring System (PRAMS)의 일부분으로 미국의 4개 주에서 구강건강과 관련시켜 보고된 내용을 분석했다. 임신 중 치과진료를 받는 사람은 22.5 내지 34.7%이었으며 이들 중 Illinois, Louisiana 및 New Mexico주에서는 구강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12.2% 내지 25.4%이었다고 하였으며 44.7% 내지 54.9%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치과를 방문했다. 구강건강과 분만전의 진료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중에서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 및 분만 전의 임신부들에게 제공하는 진료 혜택을 위하여 참여하지 않은 것이 치과치료를 받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역학적인 조사결과에 근거를 두고 Gaffield 박사는 많은 수의 임신부가 임신 중에 치과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구강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50%정도는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임신 중에 구강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외학계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치과의사들을 비롯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부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안내지침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JADA 132:1009-1016,

2001).

치과 예방처치 중 청각과 시각 혼란이 미치는 영향

치과 치료방법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공포심과 조바심 때문에 치과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치료시에 시각과 청각에 대한 정신집중이 흩어지게 하는 특수한 방안(Audiovisual distraction : A/V distraction)을 통해서 치과 예방처치(prophylaxis)중 환자들의 조바심과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문헌상에 보고된 바 있다. West Virginia 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위생과의 Cathryn L. Frere 조교수를 중심으로 한 임상 연구진은 2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처치를 실시할 때 A/V 안경을 착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처치 받기 직전에 두려움과 통증 질문서 III을 통하여 환자들의 두려움과 통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예방처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구강을 4등분하고 무작위 추출법에 의하여 두 부위의 구강 예방처치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A/V 안경을 착용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두 부분은 A/V 안경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처치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처치 받은 직후에 다시 두려움과 통증 질문서 III을 통하여 환자들의 통증과 두려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A/V 안경을 착용시켰을 경우 치료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치료 시에 환자들의 조바심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켰으며 환자들의 가장 높은 수축기의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임상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West Virginia의 임상 연구진은 A/V 안경을 치과 예방 처치 시에 착용시키면 두려움과 통증 및 치료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질문서를 통하여 조바심과 치과치료를 염려하는 환자들을 확인하고 A/V 안경을 착용시킨 후 치과치료를 시작하면 이러한 환자들의 조바심과 통증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하는 과정에 많은 도

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JADA 132:1031-1038, 2001).

자체탈회를 실시하는 시발물질(primers) 개발

'Observations' 라는 정기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Gordon J. Christensen 박사는 최근 미국치과의학협회 및 국제 치과의학협회에 접수된 연구 초록을 심사하면서 알게된 최근 급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치아 접착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요약했다. 전체 탈회 개념에 근거를 둔 세가지 요소로 된 접착제의 사용법과 이런 방법을 활용한 경우 임상적 문제를 일으킨 실제 환자의 경우를 분석하면서 사례를 설명했다. 전체 탈회 개념에 의한 치아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인산을 주로 사용하는 탈회용 액체로 처치한 후 남아있는 인산(phosphoric acid)과 인산에 용해된 무기염과 치아 표면을 갈아 낼 경우에 만들어지는 'smear' 층을 모두 닦아내고 alcohol이나 acetone이 포함된 접착액(bonding liquid)을 사용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3M ESPE에서 상품화 한 후 개원 치과의사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집중하고 있는 Prompt L-pop이라는 치아접착제는 치아표면 처리제를 사용한 후 닦아내는 과정이 없이 접착제를 직접 사용하는 아주 간편한 방법에 의한 자체 탈회개념을 기초로 한 접착제로 상아질 및 법랑질과의 접착력이 좋고 이러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치료한 환자들의 반응에 기초를 둔 임상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Christensen 박사는 보고하였다 (JADA 132 : 1041-1043, 2001).



박 기 철

- 인디애나대학교 치과대학
- 공중보건치과연구소장
- 예방치과학 및 사회치과학 교수
- E-mail: kichuelpark@mindspring.com